

주주환원 기대감 점차 되살아날 여지 있음

은행 Weekly | 2023.5.15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김대한 daehan.kim@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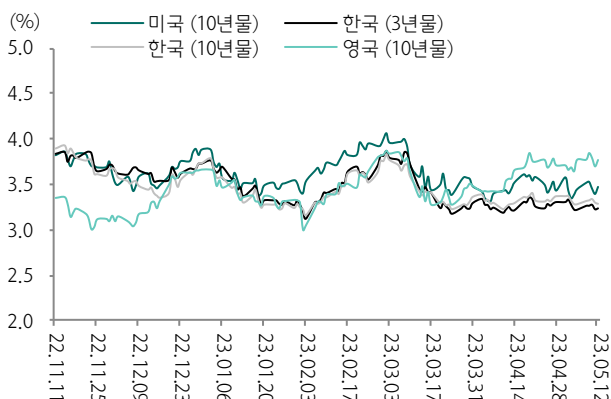
- 이복현 금감원장,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기업설명회에서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저평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질문에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전제로 주주환원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배당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
- 은행권이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투자일임업 허용을 금융당국에 요청. 금융당국은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 은행권의 소비자보호 리스크 해소, 증권업계와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방안도 검토
- 금감원, 금융지주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미래 예상 손실모형을 점검한 뒤 2/4분기 총당금 규모를 권고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은행권의 연체율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을 염려해 총당금 적립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게끔 권고할 계획
-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 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두배 이상 증가. 카카오뱅크 1.5%, 토스뱅크 2.1%, 케이뱅크 3.6% 수준.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조정 가능성 시사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3년 5월 12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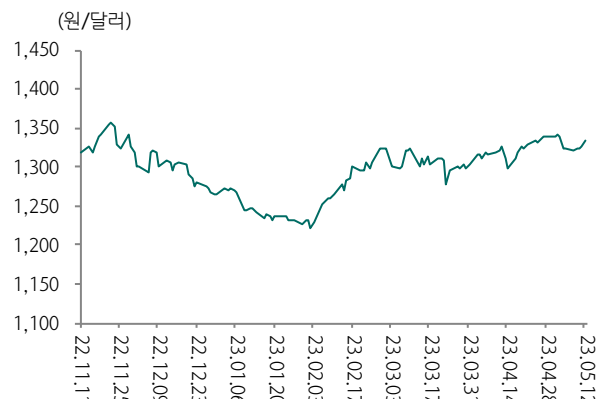
	PBR (2023F)	PER (2023F)	ROE (2023F)	ROA (2023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2023)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0.97	12.2	8.0		1,959,471.3	-1.0	-2.8	0.2	10.7	380.1	-127.6	238.2	-596.8
은행	0.29	3.4	9.3	0.65	82,537.5	-0.3	1.6	-12.3	0.0	41.3	10.1	-56.5	14.4
KB 금융	0.33	4.1	8.9	0.66	19,610.6	-0.2	3.5	-12.7	0.2	9.8	6.1	-7.8	-1.8
신한지주	0.33	4.2	9.2	0.67	17,502.0	-1.1	0.0	-15.7	-1.6	19.6	-2.1	-35.4	14.2
우리금융	0.27	2.7	10.4	0.63	8,554.7	0.9	3.9	-7.1	1.7	7.2	1.5	0.3	-7.1
하나금융	0.30	3.2	9.7	0.64	12,161.6	-1.2	0.1	-15.9	-2.3	1.0	1.2	-17.9	16.1
기업은행	0.26	2.9	9.3	0.63	8,030.1	0.5	1.1	-3.4	2.5	-1.0	0.1	1.4	-2.0
BNK 금융	0.21	2.6	8.1	0.59	2,187.0	1.2	-0.1	-4.6	3.2	1.5	0.9	2.7	-1.6
DCB 금융	0.20	2.5	8.3	0.52	1,185.7	1.7	1.7	-9.9	0.3	1.8	1.1	1.0	-3.2
JB 금융	0.31	2.7	12.6	1.01	1,648.8	1.0	-1.6	-16.5	6.1	1.4	1.2	-0.9	-0.4
카카오뱅크	1.94	34.1	5.8	0.80	11,657.0	3.8	9.4	-8.3	0.6	31.1	11.5	22.2	-53.6
삼성카드	0.43	6.1	7.1	1.85	3,470.0	0.7	-0.7	-3.2	1.4	-0.2	0.0	0.5	-0.6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0.3% 하락해 KOSPI 대비로는 소폭 초과상승했지만 하락세 지속. 국내 금융사 저평가 현상 대응 방안으로 금감원장의 주주환원 자율성 보장 언급 등 싱가포르에서 열린 금감원·금융사 공동 IR 행사 내용 등이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미국 팩웨스트뱅크의 예금 감소 소식 등 미국 중소 지역은행들의 위기론이 계속 불거지면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되돌리기에 다소 벅찬 모습이었음. 결국 외국인들은 지난주에도 은행주를 순매도하며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미국 4월 CPI 상승 폭 둔화, PPI 예상치 하회 등으로 목요일 한때 3.35%까지 하락했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한데다 미 연준 인사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등에 따라 다시 상승세로 전환. 결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46%로 한주간 2bp 상승 마감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99%로 한주동안 7bp 상승. 국내 시중금리는 크게 방향성이 없었음.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3%로 한주간 2bp 상승한 반면 10년물 금리는 3.27%로 1bp 하락. 한편 원/달러 환율은 미국 지역은행 불안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영향으로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며 주중 내내 상승세가 지속되었는데 금요일 1,344.5원으로 마감해 한주동안 21.7원 상승. 지난주 국내 기관은 은행주를 약 410억원 순매수했지만 신한지주의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추정분 약 260억원 등을 제외시 실질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 외국인들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을 중심으로 은행주를 약 570억원 순매도
- 전주에도 특징주는 카카오뱅크였음. 실적 발표 이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면서 전주에도 주가가 3.8% 추가 상승해 은행 중 가장 높은 주가상승률을 시현했는데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전주에도 각각 220억원과 310억원 동반 순매수를 기록 중.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다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에서 연체율이 많이 상승할 경우 대출 비중 목표치를 조금 유연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 5월 9일(화)에 싱가포르에서 금융감독원과 KB금융, 하나금융, 한투증권, 미래에셋, 삼성화재, 코리안리 등 6개 금융사가 공동 IR을 실시. 금감원장은 Q&A session에서 주주환원과 관련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전제로 은행의 주주환원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고 배당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 어느 정도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인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별 금융사의 IR 미팅에도 동석해 금번 행사에 참여한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주주환원 기대감이 다소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듯. 하반기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예고 등 자본적정성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지만 규제 비율이 매우 높아져 은행들의 주주환원정책이 크게 제약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금요일 장 종료 후 DGB금융은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의. 소각용 취득 결의는 아니지만 매입 완료 후에는 소각 결의 후 타행들과 마찬가지로 연내에 소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그리고 DGB금융까지 자사주 취득을 결의하고 있는 점은 분명 주주환원을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요인임. 현재 자사주 매입이 진행 중인 곳은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인데 신한지주는 매일 150,000주 정도씩 자사주를 사고 있는 반면 우리금융은 수급 측면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매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은행 4월 월중 마진은 대부분 3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추정. 분기말월 계절성을 감안해도 3월 월중 마진 상승 폭이 매우 컸기 때문에 4월 NIM 하락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 기업은행과 지방은행들의 경우는 4월에도 시중은행들보다 NIM 하락세가 더 큰 상황. 2분기 은행 평균 NIM은 전분기대비 약 3bp 하락이 예상되는데 시중은행들은 하락 폭이 2~3bp에 그치는 반면 기업은행과 지방은행들은 하락 폭이 6~12bp에 달할 것으로 전망. 미국 지역은행 불안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격 매력에도 불구하고 은행주センチ멘트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지만 주주환원 기대감이 점차 되살아날 여지가 있고, 환율 방향성이 우호적으로 변할 경우 외국인의 은행주 매수세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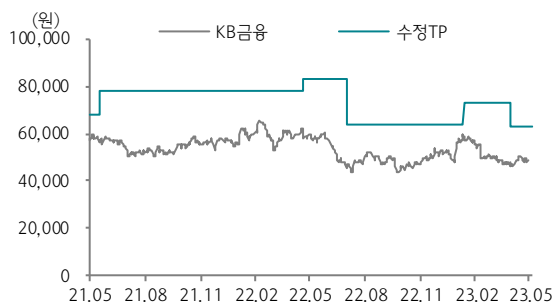
KB금융(매수/TP 63,000원), 하나금융(매수/TP 56,000원)

- KB금융의 2023년 추정 순이익은 약 4.8조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큰폭의 증익 예상. 올해 NIM도 타행대비 선방하는 흐름 기대. 압도적인 자본비율 보유로 이는 주주환원을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 업종대표주의 지위 견고히 계속 유지 예상
-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이후 1월까지 은행주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만큼 2월 이후 약세 국면에서 조정 폭도 크게 나타남. 업종내 대표적인 환율민감주로서 원화가 현재의 약세 기조에서 벗어날 경우 환율 모멘텀이 재부각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

Global Peer Table						(2023년 5월 12일 종가 기준)			
	PBR (2023F)	PER (2023F)	ROE (2023F)	ROA (2023F)	Mkt. Cap. (bil.)	Performance(%)			
						1W	1M	3M	YTD(2023)
KOSPI	0.97	12.2	8.0		1,959,471.3	-1.0	-2.8	0.2	10.7
은행	0.29	3.4	9.3	0.65	82,537.5	-0.3	1.6	-12.3	0.0
KB금융	0.33	4.1	8.9	0.66	19,610.6	-0.2	3.5	-12.7	0.2
신한지주	0.33	4.2	9.2	0.67	17,502.0	-1.1	0.0	-15.7	-1.6
우리금융	0.27	2.7	10.4	0.63	8,554.7	0.9	3.9	-7.1	1.7
하나금융	0.30	3.2	9.7	0.64	12,161.6	-1.2	0.1	-15.9	-2.3
기업은행	0.26	2.9	9.3	0.63	8,030.1	0.5	1.1	-3.4	2.5
BNK금융	0.21	2.6	8.1	0.59	2,187.0	1.2	-0.1	-4.6	3.2
DGB금융	0.20	2.5	8.3	0.52	1,185.7	1.7	1.7	-9.9	0.3
JB금융	0.31	2.7	12.6	1.01	1,648.8	1.0	-1.6	-16.5	6.1
카카오뱅크	1.94	34.1	5.8	0.80	11,657.0	3.8	9.4	-8.3	0.6
삼성카드	0.43	6.1	7.1	1.85	3,470.0	0.7	-0.7	-3.2	1.4
미국									
S&P 500	3.72	18.9	18.1	5.47	35,885.7	-0.2	0.9	1.3	7.4
은행	0.88	7.9	11.0	0.96	1,053.1	-2.5	-3.5	-22.8	-16.8
Wells Fargo	0.82	10.7	10.9	1.00	140.7	-1.2	-3.6	-20.4	-9.2
JPM	1.34	9.4	14.9	1.16	391.9	-1.9	4.4	-4.2	0.0
CITI	0.46	7.5	6.3	0.53	88.5	-1.9	-2.1	-8.3	0.5
BOA	0.82	8.0	10.7	0.92	215.9	-2.2	-4.9	-23.4	-18.2
US Bancorp	0.91	6.4	14.3	1.07	44.7	-5.2	-17.7	-39.4	-33.2
PNC	1.01	8.0	13.1	1.04	44.5	-4.0	-5.7	-29.1	-29.4
BB&T	0.61	6.3	10.1	1.07	36.4	-3.0	-16.2	-42.5	-36.6
중국									
상해A주지수	1.29	11.3	11.5	0.89	47,832.5	-1.9	-1.6	0.4	5.9
은행	0.57	5.0	11.7	0.89	8,054.2	-0.8	9.3	14.7	15.4
공상은행	0.52	4.9	11.0	0.92	1,676.2	-0.2	8.0	15.5	14.7
건설은행	0.55	4.8	11.8	0.94	1,195.5	-2.5	5.7	16.0	15.6
농업은행	0.51	4.8	11.2	0.77	1,220.3	-1.7	10.2	21.5	22.3
중국은행	0.55	5.3	10.5	0.81	1,115.0	2.0	19.2	28.8	31.6
교통은행	0.46	4.6	10.4	0.74	390.1	-3.3	10.8	19.0	23.0
초상은행	0.91	5.7	16.9	1.44	863.2	-1.9	0.9	-10.8	-8.6
일본									
NIKKEI	1.70	22.2	9.1	2.65	525,577.4	0.8	4.6	7.3	12.6
은행	0.56	8.6	6.5	0.32	40,623.4	0.8	3.2	-3.1	2.1
Mitsubishi UHF	0.61	9.5	6.5	0.28	11,019.3	0.7	1.6	-7.6	-2.3
Sumitomo Mitsui Financial	0.62	9.3	6.9	0.36	7,831.6	1.4	4.6	1.5	7.6
Mizuho	0.56	8.6	6.5	0.23	5,102.6	0.7	3.6	-1.7	8.3
Sumitomo Mitsui Trust	0.65	9.3	7.2	0.32	1,837.2	1.6	7.7	5.1	8.8
유럽									
MSCI Europe	1.83	13.2	13.0	1.03	11,979.3	0.3	1.7	3.7	9.8
은행	0.70	6.5	11.0	0.60	848.9	0.9	1.4	-4.7	7.3
HSBC	0.83	6.2	14.0	0.79	119.8	1.3	8.2	2.6	16.3
Santander	0.55	5.4	10.5	0.56	51.7	-0.2	-8.1	-7.2	12.1
BNP Paribas	0.61	7.0	8.5	0.37	72.2	1.0	2.5	-8.0	9.8
Credit Agricole	0.58	7.8	7.4	0.20	35.5	5.9	9.5	1.3	19.2
Deutsche	0.31	4.9	6.4	0.31	19.7	-0.2	0.4	-14.9	-9.0
Unicredit	0.57	5.8	10.3	0.73	36.6	-0.4	5.4	6.0	42.2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3.4.5	BUY	63,000		
23.1.18	BUY	73,000	-29.27%	-19.32%
22.7.7	BUY	64,000	-22.82%	-6.25%
22.4.25	BUY	83,000	-33.39%	-27.23%
21.5.24	BUY	78,500	-28.01%	-16.18%
21.4.19	BUY	68,000	-17.47%	-12.21%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하나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3.4.5	BUY	56,000		
23.1.18	BUY	67,000	-32.71%	-20.75%
23.1.5	BUY	60,000	-17.28%	-12.33%
22.7.7	BUY	54,000	-26.13%	-12.59%
21.5.21	BUY	68,000	-33.27%	-22.94%
21.4.19	BUY	58,500	-23.27%	-19.32%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3년 5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3년 5월 1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 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05%	4.50%	0.45%	100%

* 기준일: 2023년 5월 12일